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14, 3부

열왕기상 17-18장 3부---하나님은 누구신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아합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아니다. 아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당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아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갈등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갈멜산은 이 능선 끝에 있습니다. 중앙 능선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전국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손가락이 있고 갈멜산은 지중해를 바라보는 능선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가 왜 이 자리를 선택했는지 아시나요? 비가 오면 바다에서 물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개가 떨어지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폭풍으로 인해 떨어질 것입니다.

그는 이 갈등을 최대한 날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이곳으로 데려오라고 요구하는가? 이번에도 그는 갈등을 최대한 날카롭고 명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값싼 승리를 거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걸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무장하게, 완전무장하게 대열을 갖추고 적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여왕 이세벨의 지원을 받는다고 말한 것에 유의하십시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에서 먹고 있다고 인용합니다. 제 생각엔 그건 문자 그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테이블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점은 그녀가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는 한, 그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진부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주님은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엘리야가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입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절뚝거리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언제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릴 건가요? 언제까지 울타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시나요? 자, 그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왜 그는 그들에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왜 그들은 바알과 야훼를 숭배할 수 없었는가? 왜 우리는 일요일에는 주님을 예배하고 나머지 주간에는 온 세상을 예배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어느 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고 나머지 주에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없습니까? 이교주의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조작하려는 시도입니다. 그게 다야.

고대 이교도들은 자연을 조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을 인간화하고 이러한 힘에 맞서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을 조종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굴을 떼어냈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힘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상에 살았던 어느 민족 못지않게 이교도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선택해야 하는가?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mammon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mammon을 돈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물리적 세계입니다.

우리는 왜 선택해야 하는가? 아, 아, 여호와와는 이 세상이 아니시니라. 그를 이 세상의 일부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당신은 그를 또 하나의 우상으로 격하시켰고,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신뢰하는 것과 세상을 조종하는 우리의 능력, 그리고 야훼를 신뢰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실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사용하여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까? 물론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15장을 보면 온전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ifs도, ands도, buts도 없습니다.

경쟁자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분은 당신과 내가 완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이 사람들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세상이 아니고, 조종될 수 없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돌보고 싶어하고, 당신을 축복하고 싶어하는 신이 있거나, 아니면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잘린 황소 한 마리를 제단에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도하고 나도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신이 불로 응답하는 것은 번개입니다. 그는 바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알이 어떻게 대표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번개로 응답하시는 신이 누구든지 그 신이 바로 신이다. 그래서 그는 바로 바알의 궁정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바알이 폭풍의 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돼, 안돼, 안돼, 야훼 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옳은지 그른지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주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에 초목이 하나님 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질문입니다. 그 사람 봄에 다시 올까? 그는 지하 세계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하나의 버전입니다.

지하 세계가 그를 너무 묶어서 다시는 나갈 수 없게 만들까요? 그가 봄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너 뭐하니? 당신은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에게 알려주십시오.

그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와, 와, 저 사람들 정말 착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봄에 다시 올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슬픈지 어떻게 실제로 보여줄 수 있나요? 당신은 스스로를 베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장례 의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봄에 돌아오지 않고 지금 당장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엘리야, 이런. 그는 단지 그들을 조롱합니다. 아, 좀 더 크게 소리쳐 보세요.

당신은 신을 이 세계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신이군요, 그렇죠? 어쩌면 그는 인간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바블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거의 확실하게 그는 여기서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히브리인은 아마도 그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버전에서는 아마도 그가 여행 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당신은 그를 당신처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인간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간이군요, 그렇죠? 당신처럼 그 사람도 화장실에 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베었습니다. 그들은 광적인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은 웅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9절입니다.

작가가 요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죠? 응답 없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글썄요, 우선 그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갈멜산 기슭에는 큰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제단을 흠뻑 적시기 위해 산에 세 번 오르락내리락하게 했습니다. 희생을 흠뻑 적셔 보십시오. 이제 주목하십시오.

나는 단지 이 지점을 집으로 몰고 가고 싶다. 여호와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러 세대에 걸쳐 자신의 충실함을 입증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알게 하소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당신은 말했습니다. 대답해주세요, 주님. 이 사람들에게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여기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인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들을 당신에게 다시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마법은 없습니다. 기도.

똑바로. 분명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가 알려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땡! 번개가 떨어졌습니다.

희생제물, 제단을 불태웠습니다. 주변의 물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올바른 답을 얻을 만큼 똑똑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ifs도, ands도, buts도 없습니다.

바알의 특성으로 여겨졌던 바로 그 것. 그 전능한 힘. 그리고 이 경우에는 맑은 하늘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야훼.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엘리야의 팔다리를 찢었을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알이 대답하였으면 이제 돌아서서 엘리야의 명령을 따르라.

바알의 선지자들을 찢어라. 이제는 흥미 롭습니다. 주석가들은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어떠한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달렸나요? 아니면 나타나지 않았나요?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알았어, 아합.

가서 점심 먹으러 가는 게 좋을 거야.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소년을 산 꼭대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름이 보이나요? 아니요. 그는 땅바닥에 몸을 굽혔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습니다. 아무것도 아뇨. 돌아가세요.

의식이 없습니다. 광란적인 웅얼이가 없습니다. 아뇨. 돌아가세요. 아뇨. 돌아가세요. 아뇨. 한 번 더요. 글썽, 거기에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대략 남자 손만한 크기입니다. 아합. 전차에 타세요.

내가 말해줄 것이 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시오. 비가 올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닐 때 우리는 그랬습니다. 포스터 크기의 사진입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수업에서 가장 행동이 좋은 학생으로 판단된다면.

한 달 동안. 당신은 당신의 사진을 선택해야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그림을 알고 있었다.

마차의 사진입니다. 백마 세 마리가 끄는 곳. 그것은 정말 열광적입니다. 최고 속도로 질주합니다. 전차 안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왕관을 쓰고 말들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검은 구름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이 노인이 있습니다.

그의 수염이 어깨 위로 휘날리며.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브는 무릎 주위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길을 따라다니는 중이에요. 그는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것은 여기 이스라엘 계곡의 가장자리를 통과할 것이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계곡은 매우 높지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합은 이쪽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는 모퉁이를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하루의 끝까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종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가 내렸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야훼. 이로써 개막전은 승리했다.
극적인 방식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렇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전쟁에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 번의 전투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야훼의
견고한 적들을 물리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까? -- 확고한 적. 그 사람
주변에 있어요.

이 장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끌어 낼 것인가? 잘.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분은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리지는 않지만 분명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것은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항복하는 것은 우리와 세상을 위해 선을 위해 그분의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